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4월 15일 (제94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왜 남만 보냐?

건강이 없다면 절세미인도, 내가 힘이 없으면 장검(長劍)도 무용지물이다.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16:26).

내게 건강이 있어야 내가 소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국가가 힘이 있고, 가정이 힘이 있고, 기업이 힘이 있고, 교회가 힘이 있어야 그 안에 평안과 평화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안보 없는 경제성장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국운이 어찌 기울었는지 36년간 치욕의 일제강점기를 생각해보면 안다.

기도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나는 장독을 1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비싼 장독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급매물을 싸게 구매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힘이다.

내 자신이, 내 가정, 내 기업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한다. 천하에 어리석은 자들이 남만 보고 나를 잊고 사는 자들이다. 안타깝게도 나를 살피지 못하고 남만 보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사울을 보라. 자신을 살피고 힘을 길렀더라면 충분히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으련만 그는 남, 곧 다윗만 바라보다 넘어지고 말았지 않은가.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우리나라의 의지는 대단하다. 그러나 이는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경제력은 물론이요 국방력까지 갖춰질 때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 어디 평화통일뿐이라.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은 힘이 있을 때야 가능하다. 입다가 남을 보지 않고 힘을 키워더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았던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도 이와 같아야 한다.

남의 건강, 남의 학력, 남의 미모, 남의 기업, 남의 나라만 바라보지 말고, 내 건강, 내 가정, 내 기업, 내 교회, 내 나라를 살피 힘을 기르자. 건강을 챙기자. 그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등하불명(燈下不明) 하지 않는 자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자

지난주일 영상을 통해 보았듯이 이번 춘계산상집회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포함하는 영·혼·육 전체를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이었다.

목사님은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각과 말을 교정하라고 강조하셨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천지창조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원도 먼저 생각이 있었기에 그 생각이 그런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란 것이 우리 생각이 몰고 가는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통해 나오는 말들이 내 삶을 그대로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차선을 모릅니다. 대충도 모릅니다. 나에겐 불가능이란 생각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러한 생각으로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행동에 옮기는 노력을 통해 가히 미처 꿈꿔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도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일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나가며 병을 고치는 역사를 나타냈다고 간증합니다. 아주 감동을 받았고 내 제자들도 그러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녹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수원에서 맑은 물을 보내줘도 파이프라인이 녹슬어있으면 좋은 수질의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교체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신앙에 끼어있는 녹을 회개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으며 하나님은



영혼육의 녹을 제거하는 길은 회개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그도 저도 아니면 운전을 포기하고 내릴 것이냐, 모두 운전하는 나에게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 만드는 재료가 바로 나의 생각과 말입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생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각, 천국을 침노하는 생각, 이러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생각아래 내 입술을

믿고 기도함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었으니 여러분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나와 여러분의 차이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바랄 수 없는 일을 이루어간다면, 반대로 포기과 좌절 속에 가난과 병과 고통 가운데 피폐한 삶을 살게 합니다.

짧은결은 시간과 정비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도 짧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베트남의 폴 킴 선교사는 유튜브를 통해 내 영상을 보고, 보고, 또 보며 짧으려고 노력했더니 동일하게 귀신이 떠

결코 거저 주지 않으시는 분임을 신앙연륜이 쌓여갈수록 깨달아간다. 우리가 눈앞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철저한 계획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깨닫는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지 모르나 보이는 것이 나타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물과 땀과 기도와 노력이 수반되어있음을 깨닫는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자.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이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광주집회

장소: 김대중 컨벤션센터
날짜: 5월 24~25일 저녁 8시
문의: 062-262-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4:12~17)



생각이 결과를 몰고 다닌다

과거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은 거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자율자동차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곧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늘 사람이 일일이 작동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에 대해, 또 정제된 도로가 아닌 뽕푹린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상화된 모든 것들은 모두 비행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11:3).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엄한 선포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마15:18).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외모나 학력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 사람들의 말은 심히 부정적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건 생각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뭘 이뤄내겠습니까?

호랑이를 생각해야 고양이이라도 그린다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몰고 다닙니다(렘6:19). 생각이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8:5-6).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을 일을 좇게 되어 마침내 사망이란 결과를 몰고 오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좇게 되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결과를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만 국한된 말일까요? 아닙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생각은 마치 임신한 것과 같습니다. 처음 아이를 갖게 되면 여아(女兒)인지, 남아(男兒)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자라면서 눈이 생기고 손도 생기고 마침내 열 달 후면 완전한 생명체가 되어 이 땅에 여자·남자로 태어나듯이, 부정의 씨를 뿌리든, 긍정의 뿌리든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씨가 자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

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절대 가시나 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성취’라는 자식을 낳고,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패배’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돌연변이나 이변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까?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돼.’라는 생각을 버리고 ‘천인이, 만인이 안 돼도 나는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했지만, 나는 산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생각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열 두 해 동안 혈루 증을 앓던 여

인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최대치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막5:28)는 그녀의 생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똑같이 만졌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무가 병들었을 때 가지를 친다고 나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썩습니다. 근원, 곧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병든 인생에 회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자고로 사람의 생각은 늘 부정 쪽에 가깝습니다. 내 안에 두 마리 짐승이 늘 살고 있습니다. 부정이라는 놈과 긍정이라는

놈입니다. 그런데 어느 놈이 더 셉까요? 먹이를 많이 준 놈이 분명 셉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정이란 놈에게 먹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부정이 긍정을 이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부정을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마귀인 것 아니죠(요13:2)?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회의적인 생각에서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됩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16:7), 이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9).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눅18:27)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 우리는 이런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했을 때,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사람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눅1:35).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합당할지 모르지만, 요즘 휴대폰에 들어있는 유심칩(usim chip)만 바꾸면, 남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내 무능함을 빼버리고 하나님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여 불가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고 고백한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도토리 씨 안에는 참나무가 들어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고 했고, 다른 표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금도 ‘못한다’,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세계 최대의 갑부 빌 게이츠는 1년 중 2주를 생각의 주간으로 정하고 숲속 오두막집에 들어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인류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1년 중 50주는 생각을 하고 일은 2주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각의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의 한계를 벗어던지세요.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자동차의 핸들이 운전자가 돌리는 대로 방향을 틀듯, 당신의 생각대로 인생의 자동차가 질주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핸들을 돌리시겠습니까? 부정으로, 아니면 긍정으로?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겨자씨만한 믿음 ::

자유의 소중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갑자기 독립을 맞이하였으나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자유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 다. 세계대전 종전 후 불어 닥친 동서냉전체제의 부산물로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지고, 북한에는 공산주의 정부가 세워져 체제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제경쟁은 구소련의 붕괴와 동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처의 사회주의체제 공산국가들이 몰락하면서 끝이 났습니 다.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은 6·25전쟁 당시 월남자의 수가 65만 명이 넘었는데, 월북한 사람들의 수는 남북자를 포함해도 10만 명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탈북자의 수가 3만 2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의 고마움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경쟁은 그 결과를 통하여 이미 판가를 났는데도 죽었던 공산주의의 유령이 되살아나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자유의 소중한 가치만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감상적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민

주화를 외치고 인권을 부르짖는 자들이 3대 세습을 통한 전제 군주적 장기독재에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비판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자가당착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 동토의 왕국 북한 땅에서 숨죽인 채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혹독한 탄압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나라에 독립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에 평화통일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상관없이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의 통일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사고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종교를 아편이라고 폄하하는 집단입니다. 통일에 대한 막연하고 조급한 기대감은 금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자유가 보장되는 평화통일입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십자가가 우뚝 서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그 날을 꿈꾸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신앙논객 ::

쓰임 받는 도구가 되려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얼마 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일하던 킬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그 자리에 강경파로 분류되는 폼페이오 전 CIA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로 비유되는 온건파 킬러슨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노선에 있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노고를 치하했으나 둘 사이의 균열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경질된 킬러슨 전 장관 또한 당연히 세계를 바라보는 전문적인 식견과 협상 능력을 갖춘 인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량이 출중해도, 열정이 넘쳐도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통치권자와 손발이 맞지 않고 관계가 불편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양치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엔 다윗을 만류하던 사울 왕도 다윗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칼과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친히 입혀주며 건투를 빕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갑옷이 다윗에게는 잘 맞지 않고 불편한 겁니다. 시험적으로 몇 걸음 떼던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다며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양을 칠 때 쓰던 물매와 돌 다섯 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사울 왕의 갑옷은 당시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이 쓰기에는 불편하고 짐만 될 뿐이었지요. 마침내 성경에는 다윗이 사울의 칼이 아닌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열정이 넘쳐나도, 그 주인의 쓰기에 불편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먼저 그 속을 깨끗하게 비워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담으실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 원하십니까? 먼저 내 생각과 논리와 방법을 비우고 순종하십시오. 오, 내 주 되신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도끼는 잊어도~

미투(MeToo)운동은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폭로하기 위해 SNS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MeToo 라는 꼬리표(해시태그)를 다는 행동에서 출발했다.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도 미투운동이 일어나 언론이나 SNS에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였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지목하는 등, 연일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 이런 최근의 상황들을 지켜보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말씀(약1:14~15)이 조금도 틀린 것이 없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기억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가해자는 뻔뻔스럽게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잊겠지만 피해자에게는 그것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이는 성폭행, 성

추행 등의 문제를 넘어서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성(性)이 인간의 본능이어서 유혹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성문제가 지금 크게 드러나고 있으나 그 근저에는 힘의 논리, 곧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 내에서는 힘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서는 강자일수록 더욱 낮아져 약자에게 베풀고 섬겨야 하는 이치에 놓인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그럴 때 진정 높은 자, 높임을 받는 자가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23:12).

김성일

cre8tor@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이유 없는 사랑

요즘 매주 화요일, 우리 교단에서는 청년들을 상대로 한 예수중심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번도 세미나에 나오지 않는 친구에게 세미나에 오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고 연락을 했다. 그런데 친구에게 이런 연락이 왔다. ‘내가 세미나에 가야하는 10가지 이유를 말해봐.’ 순간 이 친구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느껴지며 기분이 상했다. ‘그냥 바쁘다, 안 온다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귀한 존재이며 만왕의 왕이신데, 이 친구에게 이렇게 대접 받을 분이 아닌데.’ 하며 그 때 걷고 있던 길거리에서 눈물이 나왔다. ‘내가 예배 한번 오라고 이렇게까지 구걸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이 문자에 굳이 답장하지 말자.’고 결단을 내렸다. 그런데 내 속에서 불결처럼 딱 한 가지 말씀이 요동쳤다. 그것은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

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과 함께 친구에게 ‘주님을 사모하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길 바란다.’고 보냈다. 그랬더니 친구는 문자로 웃으면서 ‘말로는 널 이기겠다.’고 답장이 왔고, 그날 저녁 친구는 예수중심 아카데미에 생애 처음으로 참석했다. 늘 이윤창출이 목적이 되는 사회에 있다 보니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과 순서가 이윤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돌아가며 그것이 우선이 되곤 한다. 제 친구가 자신의 유익을 따져 아카데미에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했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 이유가 없었다. 돈이 많기에, 외모가 좋아서, 명예가 높아서 등, 이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나’라서, ‘우리’라서 사랑하셨다.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메시아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사랑을 입증하신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을 사랑할 수는 없을까?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인도차이나 반도 전역을 성령의 불로 태우라



저는 5대째 주님을 섬기고 있는 폴 킴 베트남 선교사입니다. 29세

때 장로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 받아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일본, 중국 등등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왔으며, 13년 전부터는 베트남에 정착해 아내를 얻고 자식도 낳아 이곳을 거점으로 인도차이나 반도(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를 돌며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전도 집회와 순회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번 나타나셔서 제 소명을 직접 일러주셨는데, 특별히 복음전도의 사명을 주시며, ‘네가 전하지 않을 경우 저들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엄히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오랫동안 새벽기도와 철야기

도를 해오면서, 심지어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변하는 체험을 여러 번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각종 방언과 통역, 예언, 치유, 환상, 계시, 꿈의 은사를 받아 이를 현장에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특별히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선명히 깨달아 영적으로 험뎠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했었고, 이와 더불어 귀신과 질병과 가난의 저주의 사슬을 끊는 특별한 능력을 통해 저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갈급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수개월 전) 세 번의 동일한 환상을 같은 날 겹쳐서 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서 “수천여명의 청중을 향해 네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는 소리가 들려 그대로 하니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수십 미터 뒤로 쓰러졌고, 두 번째로 환상이 바뀌어 수천 년 된 거대한 고목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네가 손가락을 움직여 저 나무를 뽑으라.” 했고, 그대로 하니 실제로 그 나무가 뿌리 채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뉴욕과 같은 빌딩 숲 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인간의 음성으로, “이번에는 저 빌딩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명령대로 그 빌딩을 향해 손가락

을 살짝 움직이자 이번에도 역시 그 건물이 쭉쭉!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뿔뿔히 올라갔고, 곧바로 환상이 사라지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선명한 계시였고, 같은 내용을 세 번에 걸쳐 반복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실제로 이런 능력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 지 얼마 안 돼 성령님의 인도도 이초석 목사님의 동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평소 제가 그토록 애타게 구했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 달 가까이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귀신을 쫓는 동영상들을 집중적으로 반복해 보았는데, 설교내용이 평소 제가 주셨던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알고는, ‘제게도 이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더욱 필사적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3월 인도 남부지방과 베트남 중부 고산지대를 돌며 복음을 전하다가 다양한 귀신들의 출몰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하신 그대로 저들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고 큰 소리로 꾸짖으니 귀신들이 곧바로 비명을 지르고 떠나면서 병자들이 치유되고, 저들이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

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초석 목사님을 초청하여 베트남과 인도차이나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성령님께서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마지막 시대의 산 순교자다. 네가 그에게로 가면 저가 너를 환대할 것이며, 안수기도도 해주고 새 이름(폴 킴)도 지어줄 것이다. 또한 이번 춘계산상집회(4월 2~5일)에서 간증설교를 허락할 텐데 네가 강단에 서는 순간 내 말이 이루어질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간증문을 읽으시는 예수종심교단 전 식구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많은 사람들이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우리 아버지께 돌아오는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면을 빌어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손길을 이처럼 확실히 체험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트남 선교사 폴 킴(Paul Kim)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대

한민국을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경 저의 동역자들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강을 보고 하나님께 여쭙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강은 한강이라고 칭한다.” 저는 이 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이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데 강의 끝 하류는 북한과 연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네가 그 강으로 가서 축복하라. 왜냐하면 나는 남한과 북한, 전 한반도에 아주 놀라운 일을 진행할 것이다. 한국이 재도약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와야 했는지 모릅니다. 환상을 본 지 3주가 경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어떤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기사는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분류된 어느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

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치유사역을 하는 부흥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는데, 실증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위력이 본인에게 아주 강하게 임재하여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남한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힘이 저에게 왔던 것처럼 저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단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교회, 예수종심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의 목사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내가 그들에게 하기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에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강을 축복하고, 이초석 목사님을 찾아뵈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국내에 있는 나머지 교회들은 전부 깨어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이 통일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만이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쭙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면서 왜 울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돌아온다. 그러나 내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하며 그분은 우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분께서는 일부, 약간, 극소수만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는 낙오된 상태로 둔 채 돌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4~26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의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3년 전에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돌아온다. 준비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혼돈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 생명의 빛줄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각각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한에 있는 여러분들, 속히 일어나십시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전사가 되어 영적인 힘을 갖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부흥사 크리스틴(Kristin Low) 목사